

파면 정국과 민주노총의 역할



이야기 순서

내란 이후 개괄 영상

내란의 밤 이후 달라진 두 가지 01

치밀하게 오랫동안 준비했던 위험천만 계엄 02

민주노총이 길을 열겠습니다. 03

한남동 대첩 04

2024 '퇴진광장을 열자' 구호가 현실이 되기까지 05

조합원들이 광장의 주역으로! 세상을 바꾸자! 06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이제는 파면이다

내란 동조 세력 남김없이 청산하고 사회 대개혁 투쟁 시작하자!



#1. 내란의 밤 이후 달라진 두 가지

01 대통령 윤석열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 극우 유튜브 신봉자
- 총과 도끼로 문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며 국회 점령을 지시한 자
- 제왕적 권위를 위해 언제든지 전쟁을 획책할 수 있는 자...

정치평론/홍준일 논객

김용현 전 국방장관 검찰 공소장, "총을 싸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CNN: "유튜브 기반 정치, 한국 정치의 새로운 위기"

CNN은 윤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이 유튜브에서 확산된 보수 음모론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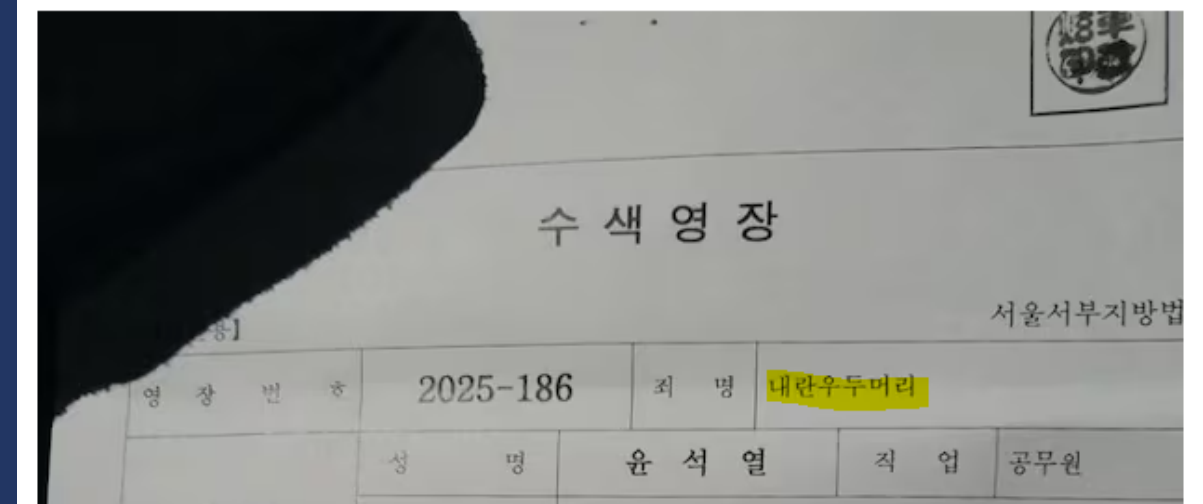
- '반국가 세력' 발언:
- 윤 대통령이 특정 세력을 겨냥해 반국가적이라고 지칭한 발언은 유튜브에서 널리 퍼진 보수 음모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
- 유튜브 의존 문제:
- 윤 대통령이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투쟁을 실시간 지켜본다"는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보내며 논란을 키웠다고 보도.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색영장...유효7

‘형소법 110조 배제’ 내용은 없어...1차 영장과 차이
尹 측 석동현 변호사, 수색영장 공개
공수처 “관저·사저·안전가옥 수색 필요”

이현승 기자

업데이트 2025.01.15. 06:59 ▾



#1. 내란의 밤 이후 달라진 두 가지

01 대통령 윤석열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 사상 초유의 사법 기관 폭동! 우발이 아니다.

극우 집단의 폭력을 부추긴 자 윤석열

윤 대통령 쪽과 여당은 내란을 '고뇌에 찬 결단'으로 꾸미고,
윤 대통령을 억울한 피해자로 만드는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꾸준히 보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여당, 전광훈 목사 등 일부 기독교 세력들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선동'을 한 셈"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폭동은 우발이 아니다...윤석열 빼다박은, 법원으로 간 '백골단'

대통령·여권이 부추긴 난동... 엄정 대응해 재발 방지해야

해외 미디어 동향

초유의 법원난입·대통령 구속 외신도 주목... "韓 정치적 위기 직면, 尹 때문"



#1. 내란의 밤 이후 달라진 두 가지

02 노동자와 시민, 광장에서 동지가 되다

노동자-응원봉 시민들, 투쟁 공동체로 거듭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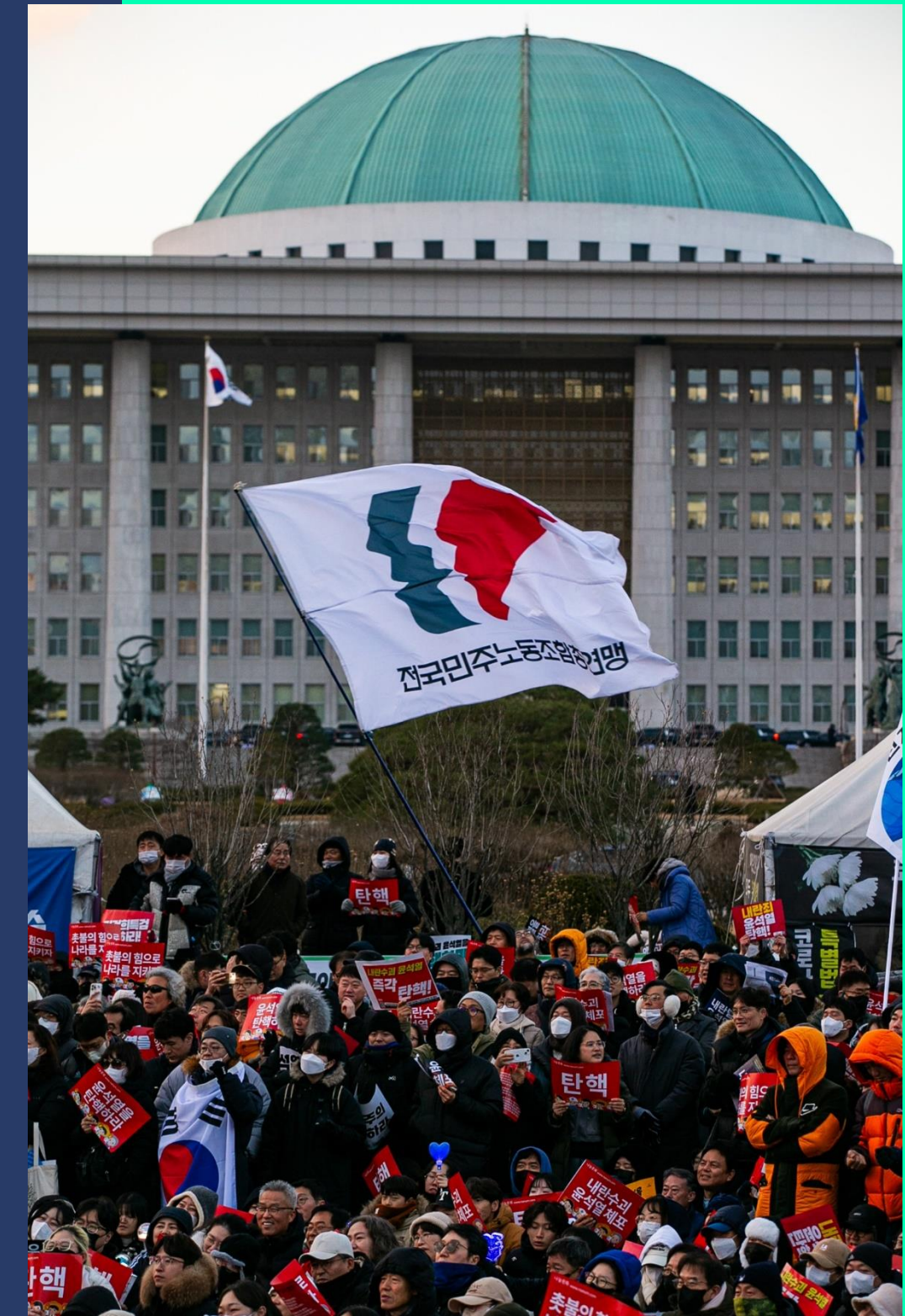
계엄군의 국회 봉쇄를 열어낸 힘도,

법원의 적법한 영장에 불응하며 요새화된 관저를 뚫어낸 힘도,

함께 투쟁한 광장의 민중들.

- ▶ 대한민국 76년간 총 17회의 계엄 중 시민의 힘으로 막아낸 최초의 계엄
- ▶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된 대통령

역사상 전례 없는 쟁취의 기록을 스스로 써 내려갔다.



#2. 치밀하게 오랫동안 준비했던 위험천만 계엄

전쟁 기획, 불법 포고령...

- ▶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남침 유도 ▶ 북파 공작원을 활용한 국내 테러 조작
- ▶ NLL 포격으로 북의 포격 유인 ▶ 오물 풍선 원점 타격으로 북 도발
- ▶ 선거관리위원회 부정, 22대 총선 결과 부정
- ▶ 국회 해산 시도
-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체포, 구금 지시
- ▶ 정당 활동 금지와 사실상의 노조 활동 금지
- ▶ 언론 통제와 북풍 조작까지

윤석열의 '전쟁 획책, 파쇼 독재' 시도가

성공했다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을 것이다



jtbc (+) 구독

"국회·정당 등 모든 정치활동 금지"...포고령 첫머리부터 '불법'

윤석열·김용현 '국회활동 금지' 포고령 두고 서로 '네 탓'

#2. 치밀하게 오랫동안 준비했던 위험천만 게임



결코, 즉흥적이고 허술한 게임이 아니었다. 단...

윤석열이 고려하지 못했던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맨 몸을 던질 수 있는
시민의 존재, 광장 투쟁의 위력



#3. 계엄 직후 즉각 총파업 지침

“망설일 시간 없다. 즉각 총파업”

- ▶ 12월 3일 계엄 선포 즉시 국회 집결 지침
- ▶ 국회 앞 시민들과 투쟁
- ▶ 긴급 중집, 만장일치로 즉각 총파업 결정
- ▶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 돌입
- ▶ 내란 공범 국민의힘 규탄 투쟁
- ▶ 국민의힘 의원 문자 항의 행동
- ▶ 시민 촛불 매일 결합



#3. 계엄 직후 즉각 총파업 지침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 행동 결성”

민주노총 포함 1700여개 노동·시민사회가 모여 ‘윤석열 즉각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결성, 광장 투쟁 확대



#3. 계엄 직후 즉각 총파업 지침

12월 7일 토요일 (계엄 직후 첫 국회 집회)

물 밀듯 모여드는 100만 시민의 집회 참여를 안전하게 보장하려면 무엇보다 공간 확보 절실

민주노총은 ‘조직 노동자의 힘’으로 경찰의 방어선을 뚫고 길 확보

이날부터 ‘길을 여는 민주노총’이라는 애칭이 생겼고 전례 없던 시민들의 응원 폭발적



@LUCKY-f6t · 1일 전
시위할때 민주노총분들이 길확보하고있다는 소리 들리면 너무 든든해요 ㅠㅠ

42

자매 @보송보송자매 · 9시간 전
12월 7일 현장에 있었어요. 민주노총이 길을 열겠다고 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사람들이 움직이며 숨이 탁 트였어요. 그 전엔 진짜 ㅠㅠㅠ 앞뒤로 샌드위치였는데 ㅠ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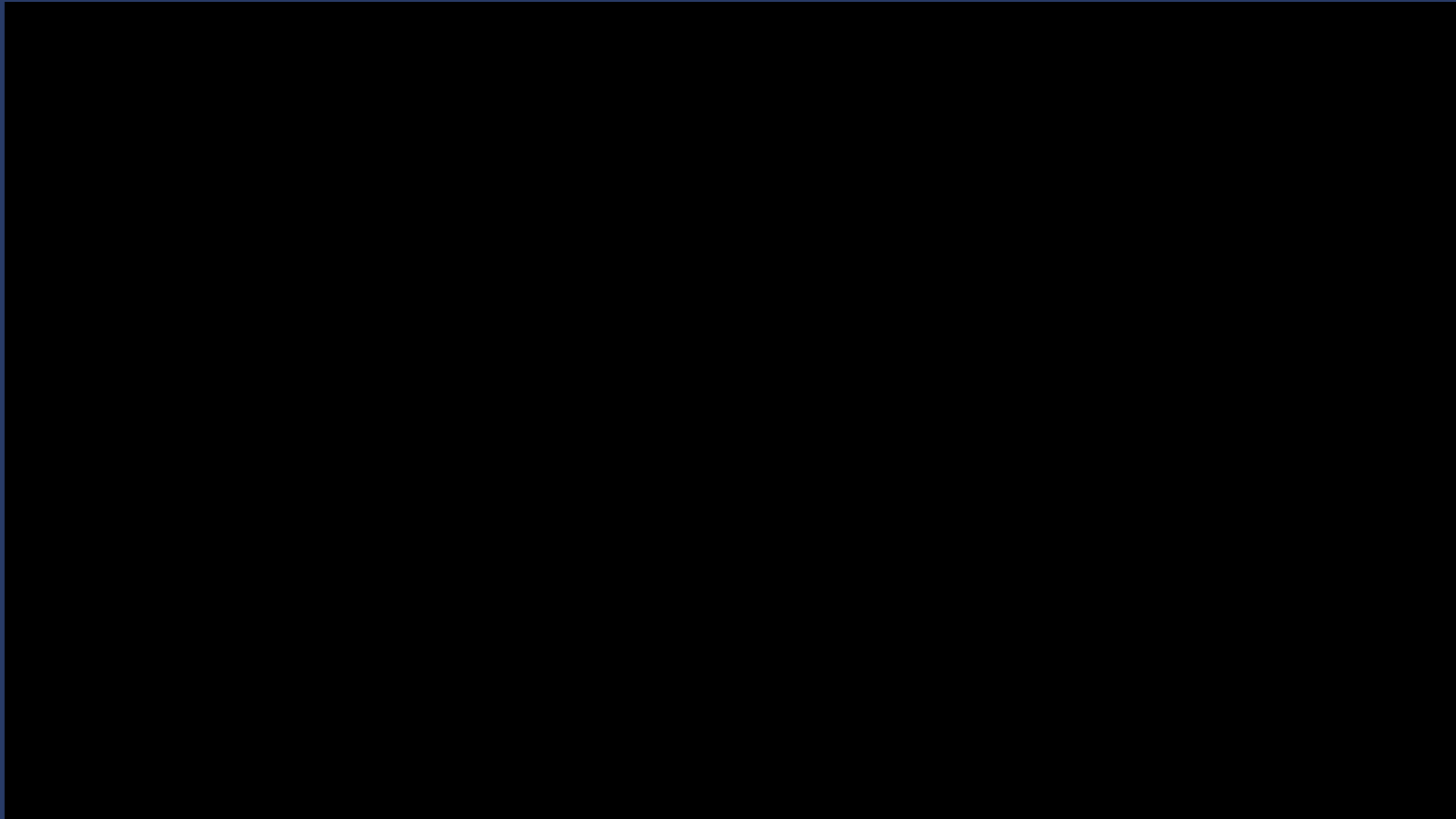
7

n @paradox888-o1q · 1일 전
감사합니다 민주노총이 있어 든든합니다 끝까지 함께 감시다 투쟁!

@djdjdjsnrmfjfdjs-o8b · 1일 전
길을 여는 모습을 봤던 20대 여성입니다. 시위가 익숙하지 않았지만 용기를 갖고 참여할 수 있었던건 경찰보다 든든하게 길을 열어준 민주노총 덕분이었습니다. 투쟁!!!

#3. 계엄 직후 즉각 총파업 지침

12월 7일 국회 앞 집회 “민주노총이 길을 열겠습니다” 영상 잠시 보고 갈게요 ^^



#3. 계엄 직후 즉각 총파업 지침

○ 12월 12일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포한 윤석열 담화를 본 민주노총은 당초 경로를 바뀐 한남동 관저로 진격
민주노총은 관저 진격 투쟁을 성사 시키며 윤석열 체포 투쟁의 방향타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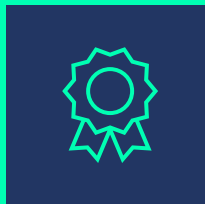


#3. 게임 직후 즉각 총파업 지침

“민주노총 부른다고 했다” “길을 여는 민주노총”

정세의 고비마다 선도적 투쟁 방향을 제시하고,
가장 전투력 있게 투쟁하는 노동자 대오!
시대의 고비마다 실천과 투쟁으로 돌파해 온
민주노총의 역사가
응원봉 민주주의 광장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구 트위터)에 민주노총에 보내는 편지글 소개 --->>



“민주노총 부른다고 했다”

밈(meme, 인터넷 유행 콘텐츠)

어렵고 힘들 때 경찰 말고

민주노총 부르는 게 더 안전하다는 의미



🧡🕯️ 맘씨좋은 김마중씨& 정새별씨 🕯️
@prometh77

지난 주말 한강진에서, 이 말을 적어 자유발언 신청대로 향했다.
마침 멀리서 핫팩을 이고지고 택시 타고 온 친구가 막혀 있다고 해서 급히 차
를 가지고 가느라 타이밍을 놓쳤다.
타이밍 놓치길 잘한거 같기도 하고 ㅎㅎ

여러가지 이유로 사랑했고, 미워했던 민주노총에 닿기를.

여성과 남성이, 여성도 남성도 아닌 또 다른 성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노동자와 농민, 자영업자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 모두 함께 그 길을 엮시다.

우리 모두 한 표입니다. 민주노총도 1인분만 하십시오. 혼자
서 10인분 하려다가 잡혀가고 다치고, 아프지 마십시오.
민주노총 조합원도 똑같이 세금 내는 시민이고, 집에 가면
귀한 자식이고, 아버이고, 누군가의 친구입니다. 각자가 1인
분씩 잘해서 그 길 열면 됩니다.

어쩌면 이미 길이 열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꼬가 한번 트
이면 물길은 결코 되돌아 흐르지 않습니다. 작게 시작된 물
길이 강줄기가 되고 마침내 파도가 되어 윤석열과 내란 일당
들을 쓸어낼 것입니다.

그렇게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손잡고 윤석열과 내란 일당들
다 쓸어 버리고 올해 11월에 민주노총 30번째 생일잔치에
응원봉 동지들과 시민들을 초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간 민주노총이 쫓기고 밟히며 버텨내느라 정
작 하지 못했던 이야기, 진짜 민주노총이 하려던 얘기,
새로운 시대, 노동의 큰 희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함
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한남동 대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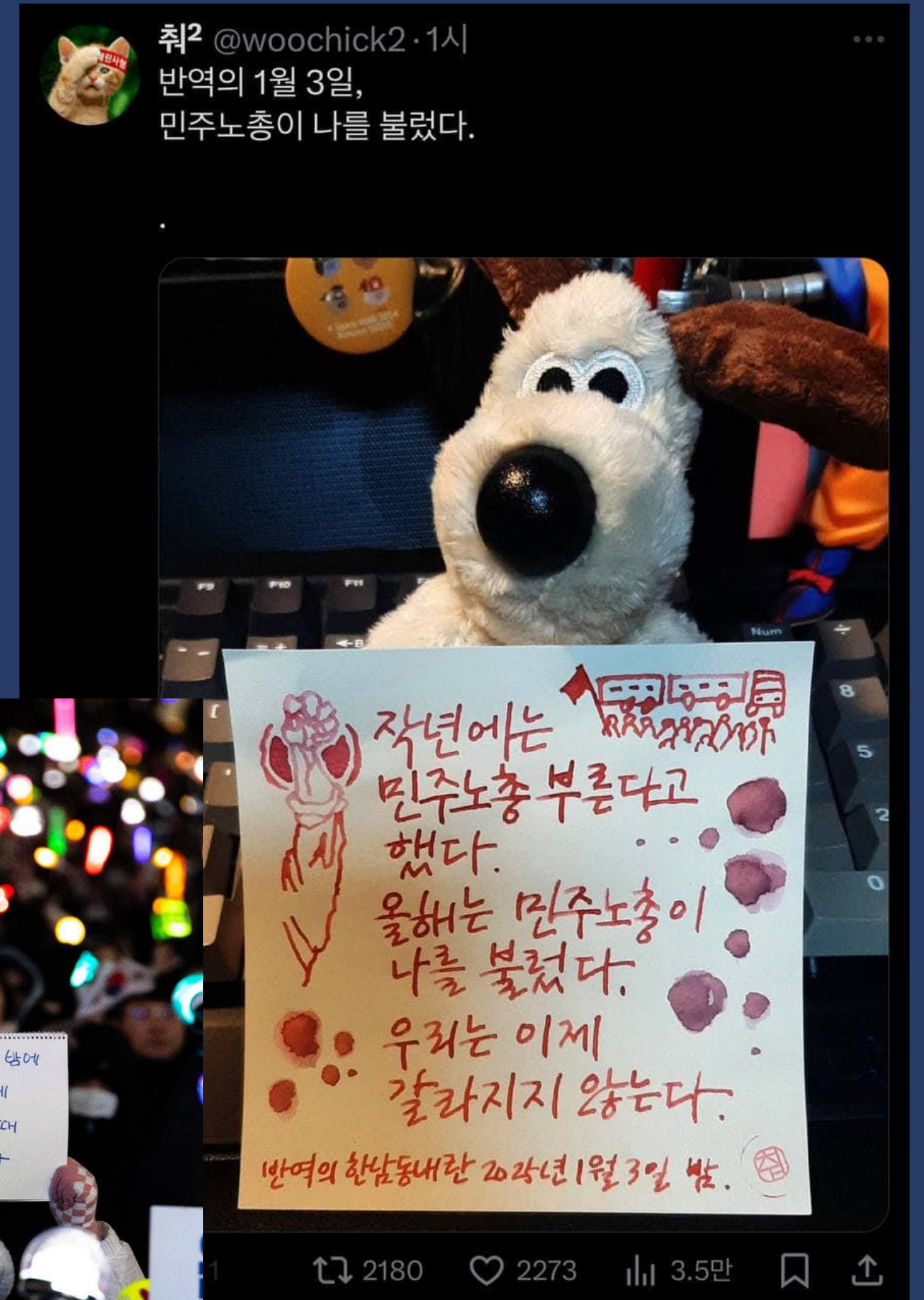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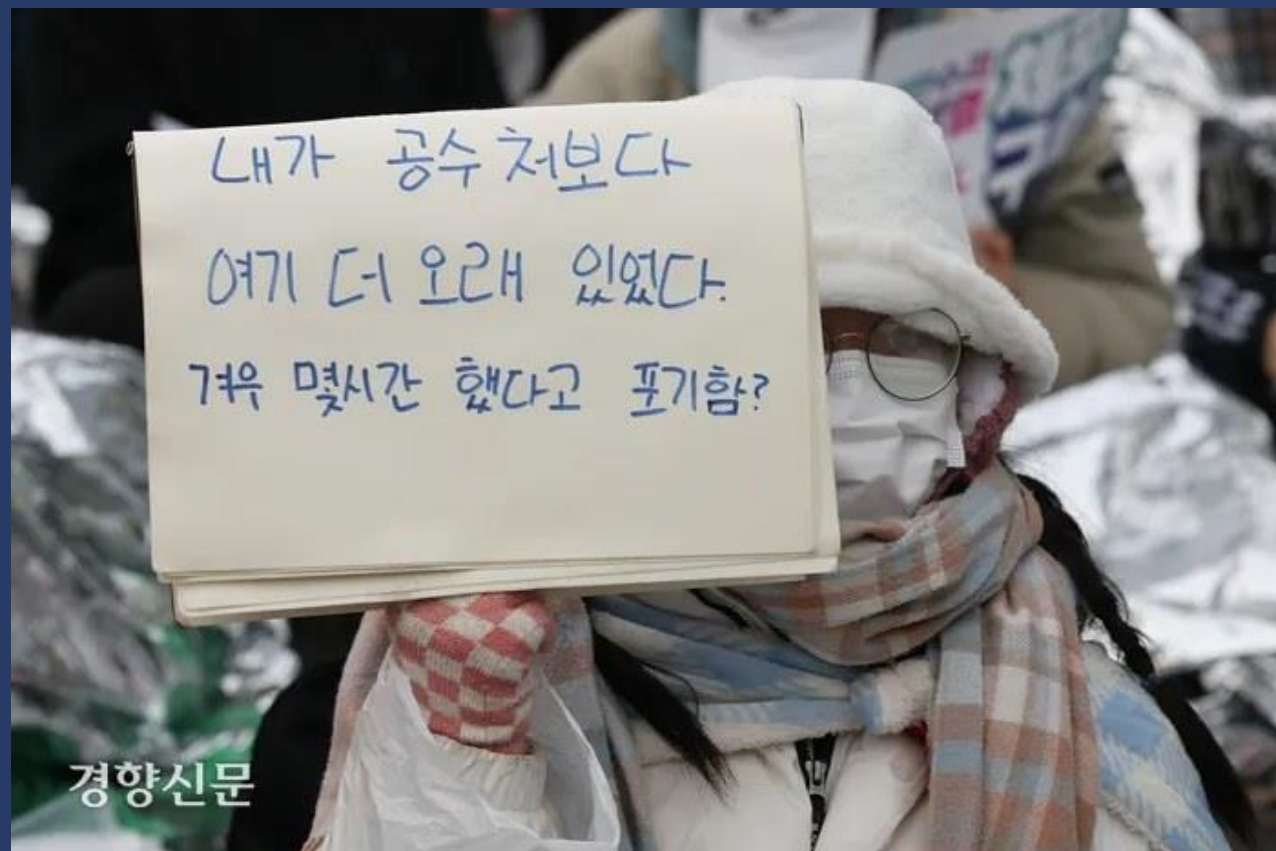
🕒 1월 3일~6일

“응원봉 시민들과 민주노총은 동지가 되었습니다.” 한남동 대첩

1월 3일 공수처의 체포 작전 5시간 만에 실패. 민주노총은 긴급 투쟁으로 한남동 관저 앞 농성 투쟁 결의
온라인에서는 “민주노총이 나를 불렀다”가 또 다른 밈이 되어 응원봉 시민들이 관저 앞을 가득 메웠다.

시민들은 노동자의 삶과 투쟁에 집중했고, 노동자들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다시 돌아보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이자 동지로 거듭났다.

이렇게 함께 한 3박 4일. 일명 한남동 대첩으로 불리게 되었다.



#4. 한남동 대첩



OhmyNews

OhmyNews



#4. 한남동 대첩

🕒 1월 3일~6일

민주노총과 응원봉 시민들의 연대는

탄핵의 광장을 넘어 노동자 투쟁 현장으로

장애인 투쟁 현장으로, 서로가 서로를 살리기 위한 연대로 이어짐.

‘임을 위한 행진곡’과 ‘다시 만난 세계’를 함께 부르는 광장이 비로소 펼쳐졌다.



우리의 3박 4일은 위대했습니다. 눈보라도 비바람도 우리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청년들은 투쟁을 외치고, 노동자와 기성세대들은 ‘다시 만난 세계’에 함께 응원봉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동지가 되었고 깨지지 않는 연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양경수 위원장

연대는, 투쟁은, 누가 대신해서 싸워주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싸우는 것입니다. 서로를 살리기 위해 이 광장에 섰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살리는 불씨입니다
- 응원봉 시민 발언 중

#5. 2024 '퇴진광장을 열자' 구호가 현실이 되기까지

“우리는 이미 싸우고 있었다.

민주노총은 2024년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전면에 제기

- △ 총궐기, 국민투표, 거리를 여는 수요 행진, 집행부 전국 현장 순회
- △ 9월 28일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 대회
- △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및 1차 총궐기
- △ 11월 20일 2차 총궐기
- △ 12.7일 3차 총궐기를 예고한 가운데 12월 3일 비상계엄 정국.

특히 11.9 전국노동자대회는

경찰의 폭력 진압 속에서 성사시킨 대회로,

퇴진 광장을 여는 분수령이 되었다.



#5. 2024 '퇴진광장을 열자' 구호가 현실이 되기까지



#5. 2024 '퇴진광장을 열자' 구호가 현실이 되기까지

“ 현장과 일터의 투쟁이 민주노총의 힘

- Eleanor Fitzgerald



- ▲ 전교조, 공무원노조는 징계와 수사 압박에도, 현장 조합원들과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진행
- ▲ 금속노조 중앙 교섭 조합원 찬반투표 윤 퇴진 국민투표 진행,
계엄 직후 99개 지회 13만명 파업 참가, 37개 지회 확대간부파업 진행
- ▲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공동파업, 철도노조 등 공공운수노조파업, 울산 플랜트노조 '윤 퇴진' 정치 총파업
- ▲ 화학섬유노조 씨지앤대산 전력지회 윤 퇴진 사업장 출근선전전, 지역퇴진집회 주도
부산경남지부 윤 퇴진과 국힘당 해체 조합원 인증샷 진행, 선전물로 현장 배포
- ▲ 민주노총 대전본부 집회 물품 무료 이송, 우비 및 핫팩 배포
- ▲ 일터의 실천 서비스 마트 노동자의 근무복 퇴진 버튼 착용, 배달플랫폼노조의 오토바이 배달통 퇴진 스티커 부착,
백화점면세노동자의 퇴진 인증샷 운동 등
- ▲ 광장과 일터의 연결 민주연합노조 '어묵 포차', 학비노동자의 '탄핵 어묵', 라이더 노동자들의 '민주주의 배달',
택배 노동자들의 '국민 광고판', 화물연대의 난방버스 지원

#5. 2024 '퇴진광장을 열자' 구호가 현실이 되기까지



#5. 2024 '퇴진광장을 열자' 구호가 현실이 되기까지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윤석열 탄핵, 체포!
국민광고판이 되겠습니다!

윤석열을 체포하라!
서울시 용산구 시민 000

모집기간 2024년 12월 11일(수) ~ 윤석열 체포시까지
모집인원 100명(추후 추가될 수 있음)
신청방법 <https://bit.ly/윤석열탄핵국민광고주모집>
(신청시 1.5m*1.5m 크기의 인쇄가능 사진 파일 업로드 필요)
(파일 업로드 권한때문에 구글에 로그인해야 신청 가능)
광고비용 3만원(현수막 제작 및 배송비용)
입금처 접수 후 개별적으로 안내
문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010-9140-9645)

신청 QR코드

※ 욕설/반말/인신공격/비방/차별적 언어 등의 문구는 접수과정에서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탄핵집회 이송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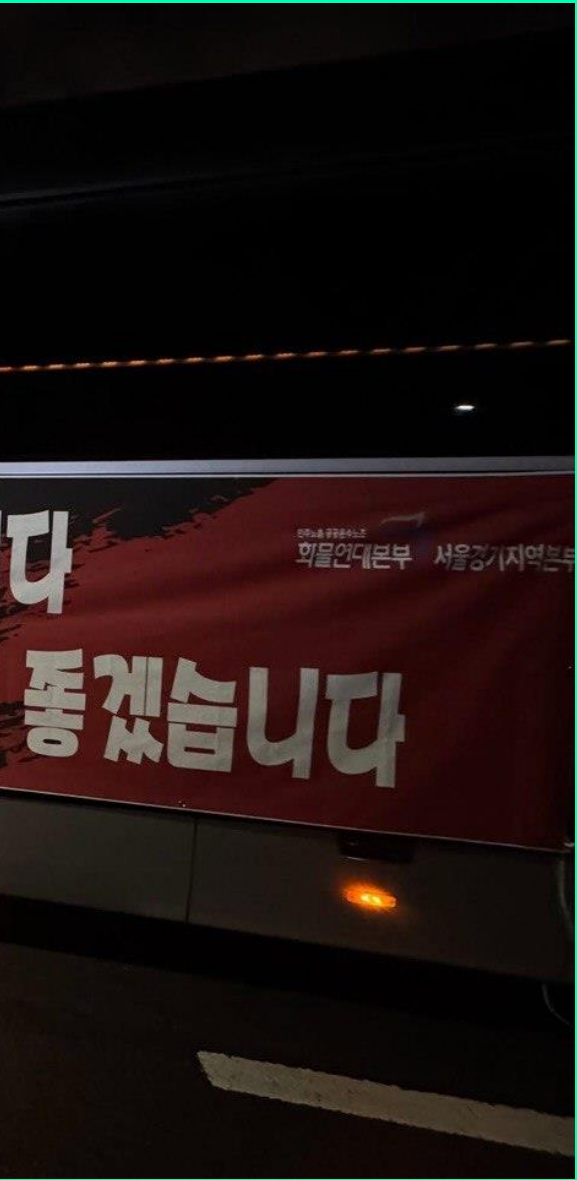
배달라이더의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이
탄핵집회 이송과 물품 운송을 지원합니다!
(어르신/환자 등 이용이 불편한 시민 우선 지원)

운영시간
2024년 12월 14일(토) 오후 2시~

지원장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
현대카드빌딩 1관 앞

문의사항
010-8260-0551

라이더유니온



#6. 조합원들이 광장의 주역으로! 세상을 바꾸자!



“

노동기본권과 민주주의 권리는 함께 성장할 것이며
광장에서 배운 민주주의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광장을 통해 배운 노동조합을 배웠습니다.

이제 2030 청년은 노동조합이 정말 하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

#6. 조합원들이 광장의 주역으로! 세상을 바꾸자!



광장은 새로운 세상을 향한 공고한 연대 다짐의 장,
직접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학교!

노동자, 시민이 함께 만들어낸 빛의 항쟁. 실로 혁명적 국면 위에 서 있다.

윤석열 내리는 데서 끝이 아니라, 노동자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만들 때까지

광장 정치는 끝나지 않아야 하고, 보다 강하고 넓게 지속되어야 한다.

윤석열 치하 2년 6개월. 우리 노동자들의 일상은 계엄이었다.

민주노총이 앞장에서 회복시키고 만들어가야 할 세상은 분명하다.

#6. 조합원들이 광장의 주역으로! 세상을 바꾸자!



모든 노동자와 함께 정권교체를 넘어 다른 세상을 만드는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
의료·돌봄·교육·교통·주거·에너지 공공성이 보장되는 사회.
이것이 200만 민주노총 시대가 만들어 낼 세상이다.

가장 소중한 빛으로 항쟁의 광장을 만든 응원봉 시민들과 함께,
이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더욱 광활한 광장을 만들어
사회 대개혁 투쟁으로 전진해야 할 것이다.

빛의 혁명, 광장의 주역으로! 우리 조합원들이 나섭시다!



전 조합원 총집중의 날
모두 나가자! 빛의 광장으로

2월 15일(토)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실현! 범시민 대행진